

봄과 여름 사이 (가제)

2고 2018.03.21

민영선

초봄, 몸이 아픈 할머니가 연주의 집을 찾아온다.

인숙은 연주 보고 봄놀이를 가자고 하고, 영어학원을 가기 싫은 연주는 할머니를 따라 나선다.

S#1. 지홍 차 안 / 저녁

여의도 벚꽃 축제 길. 차가 막혀 지홍의 차가 길에 서다시피 가고 있다.

학교 책가방을 멘 연주(10), 연주는 호 불어 입김으로 만든 뿌연 창문에 알파벳을 그린다.

지홍

엄청 막히네.

해영

그러니까. 곧 여의도 축제 기간이라 그런가.

지홍

그... 모레 병원에 누나들도 온다니까...

(해영의 눈치를 보며)

해영

병원으로 오신 대?

지홍

응. 그런 거 같아.

해영

저번에도 수술하셨는데... 재발 하신 건가?

지홍

가 봐야 알 거 같은데...

한숨 쉬는 지홍. 목이 타는 지, 옆에 둔 생수를 마신다.

연주는 차 창문을 내리고 벚꽃 잎이 흩날리는 나뭇가지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심스레 손을 내민다. 벚꽃 잎이 창문 틈으로 들어온다. 그걸 바라보는 연주의 타이트한 얼굴. 암전, 보이스 오버. 연주의 목소리가 들린다. ‘봄..’

- 타이틀 -

봄과 여름 사이 (가제)

S#2. 연주 집 / 낮

단정한 차림의 해영(39)은 연주의 머리카락을 땅아준다. 연주는 영어학원 숙제를 바닥에 펼쳐 놓은 채 단어를 읊는다. “beautiful” 단어를 공책에 따라 써본다.

해영

이따 할머니 보면 인사 잘 하고. 학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와야 돼.

놀이 말고. 같이 저녁 먹게. 알았지 ?

연주

오늘 할머니 오니까 학원 안 가면 안돼 ?

해영

너 또 단어 시험 안 외웠지. 미리미리 하라니까.

연주

아닌데..

연주, 해영을 등지고 누워버린다. 연주, 낙서하듯이 영어 글씨 위에 그림을 그린다. 땡땡- 초인종 소리가 거실에 울린다. 네- . 해영 현관문 앞으로 나가고 거실에 홀로 남겨진 연주. 현관문을 연 해영 눈 앞에 지홍(43)과 인숙(67)이 서 있다.

해영

오시기 많이 힘드셨죠.

인숙

아이고, 되다.

해영

그래도 이이가 어머님 데리러 간다고 아침 일찍부터 나서긴 했는데.

(멋쩍게 웃는)

지홍

주말도 아닌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해영, 거실에 앉아 이쪽을 보고 있는 연주를 향해 손짓 한다.

해영

연주야. 어머님, 연주 4살 때 뵈고 못 봤었죠 ?

연주 주뺏대며 현관문 앞으로 간다. 지홍은 피곤한 듯, 연주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연주를 지나쳐 부엌으로 가고, 연주, 처음으로 인숙을 마주한다.

인숙

아고... 많이 컷구나...

연주...

연주 ...

신발을 벗으며 불편한 거동으로 연주에게 다가가는 인숙. 연주의 얼굴에 손을 맞댄다. 까맣고 주글주글한 인숙의 손이 뽀얀 연주의 피부에 닿는다. 그 광경이 조금 불편한 듯 뒤에 서 있는 해영. 연주, 인숙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본다. 파마가 다 풀려버린 검은 머리카락 사이사이 눈에 띄게 많은 흰 머리카락. 눈가의 주름이 진한 자국이 남도록 연주에게 활짝 웃어 보이는 인숙. 연주는 인숙의 웃음이 낯설다. 연주의 얼굴은 인숙에 대한 궁금함과 어색함이 공존한다.

S#.3 연주 집 / 낮

해영, 방문을 연다. 열려 있는 작은 창문. 간단한 이불 자리 그 옆에 놓인 요강.

해영

잠깐 지내시기에 괜찮으실 거예요. 해도 잘 들고요.

저기, 요강인데... 혹시 급하실 때...

인숙, 해영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해영은 인숙의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천천히 빼고는 인숙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덮는다.

해영

몇일 지내시는 데는 괜찮으실거예요...

해영은 친절하게 말한다. 인숙은 소파에 앉아 있는 지홍의 눈치를 살피며 현관문 앞에 가져온 쇼핑백을 뒤진다.

인숙

내가 너희 주려고 꽃감을 좀 가져왔는데...

지홍

괜찮아요 ...

지홍은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지만, 인숙을 거절하고 싶은 그런 덤덤한 말투로 말한다. 거실 티비를 켜는 지홍. 인숙은 그래도 쇼핑백을 뒤적거린다.

인숙

이거 시장에서 내가 지선이한테 가져 온 거야.

직접 집에서 했대. 지선이 알지 ? 그 왜, 동사무소 일할 때 잠깐 일했던

인숙, 꽃감을 주섬주섬 꺼내 지홍에게 하나를 건넨다.

지홍, 마지 못해 받는다.

연주

엄마, 그럼... 나는 어디서 자 ?

연주의 말이 거실의 묵직한 분위기를 깬다.

해영, 연주의 팔을 흔든다.

해영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방에서 잔다고 엄마가 어제 말했잖아.

(당황스러워 하며)

지홍

그래, 같이 자면 되지 뭐. 거실에서 숙제 하고. 그럼 되지 왜?

연주는 처음 듣는다는 듯 억울한 얼굴. 해영은 지홍의 얼굴을 쳐다본다. 지홍도 연주의 말에 놀란 눈치.

지홍

엄마 주민등록증은 가져 오셨어요 ?

연주에게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낡은 조끼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지홍에게 내미는 인숙. 해영의 손에 이끌려 현관문 앞으로 가는 연주. 해영의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인숙을 힐끔힐끔 보는 연주. 무심히 인숙의 주민등록증을 살피는 지홍.

S#4. 연주 집 / 밤

안방 바닥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지홍, 연주는 해영과 같이 침대에 누워있다. 해영은 비스듬히 누워 연주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준다.

연주

엄마, 할머니 언제까지 있어 ?

해영

일주일 정도 ?

연주

왜 온 거야 할머니?

해영

할머니가 아프셔.

연주

어디가 ?

해영

심장이 안 좋으셔. 시골에는 병원이 없잖아.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들르실 겸 잠깐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해영, 잠깐 멈칫하더니

해영

할머니한테 방 뺏겨서 싫어 ?

연주

아니, 엄마... 근데...

해영

응

8

연주

할머니한테서 ... 냄새 나.

해영

시골분이시니까 흠 냄새가 몸에 배서 그래.

그래도 어른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돼.

연주, 뭔가 잘못 말한 건가.

손으로 연주의 눈을 쓸어주는 해영,

일부러 졸린 척 하는 연주, 해영의 얼굴이 복잡하다.

S#5. 연주 집/거실/아침

연주, 식탁의자에 앉아 졸린 듯 눈을 비비며 아침밥을 꾸역꾸역 먹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티비를 보는 인숙, 해영은 분주하게 싱크대를 정리하며 연주 앞에 차려진 밥상 위에 밥상보를 올려놓는다. 안방에서는 넥타이를 와이셔츠에 감으며 지홍이 나오고 분주한 모습들. 해영, 티비를 보고 있는 인숙에게 다가간다.

해영

어머니, 저 일 갔다 올게요. 신 학기라 학교에 연차를 못 내서요..

인숙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들 봐.

해영

죄송해요...

연주가 학교 끝나고 세시쫄 오니까 같이 드시면 돼요.

당신, 밥 먹을 거야?

해영, 다시 부엌쪽으로 향한다.

인숙은 거실 창가 옆에 놓인 화초에 천천히 가까이 간다.

식탁에서 보고 있던 연주가 인숙에게 다가간다.

연주

애 엄마가 버리려고 했던 건데...

이파리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듬성듬성하게 자란 난초를 살피는 인숙.

연주와 인숙이 나란히 연초를 바라본다.

해영

연주야, 학교 늦겠다.

지홍

저희... 갔다 올게요.

어정쩡하게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해영과 지홍.

인숙

그러, 어여들 가.

인숙은 열린 해영 쪽으로 가라는 손짓을 연주에게 한다.

연주는 느릿느릿 해영과 지홍의 틈으로 들어가고, 인숙은 난초 잎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그 모습을 유심히 보는 연주.

S#6. 집 안 / 낮

집 안에 홀로 남은 인숙. 천천히 집을 살핀다. 연주 방 안에서 연주가 벽에 붙여 놓은 그림들을 본다. 연주가 받은 상장들. 연주의 일기장. 연주의 사진들.

Cut to

안 방을 머뭇거리며 들어가는 인숙. 해영의 화장대 앞에 놓인 결혼사진, 연주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걸린 액자를 들어 보는 인숙. 볼에 밝아 보이는 셋. 인숙, 화장대 의자에 앉아 본다. 거울 앞의 인숙의 모습. 자신의 흰머리가 얼마나 많은 지 본다. 해영의 화장대 앞에 놓인 립스틱 하나를 집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인숙, 해영의 립스틱을 발라본다. 인숙과는 어울리지 않는 붉고 진한 빨간색 립스틱이다. 인숙 휴지 한 장을 꺼내 열린 입술을 지운다. 다시 자신의 머리카락을 헤집어 거울을 본다.

S#7. 집 안/ 낮

가방을 멘 연주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선다. 조용히 머뭇거리며 거실로 간다.

인숙, 연주가 학교 갔을 때와 같은 자리, 거실 창가 앞 난초 옆에 앉아 있는 인숙.

인숙

어, 왔어.

아직 인숙이 어색한 지 고개만 끄덕이고 원래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는 연주.

인숙의 흔적들로 다소 달라진 자기 방. 연주, 가방에서 영어학원 노트를 꺼낸다. 영어 단어를 마저 쓰려다, 연주 일어나 인숙을 보러 얼굴을 방문에 뺨뚱 내놓는다.

난초 갈색 잎사귀들을 가위로 자르고 있는 인숙.

연주는 인숙에게 다가간다. 인숙에 옆 바닥에 펼쳐진 신문지들. 인숙이 갈색 이파리들을 잘라낸 흔적들이 숨아낸 난초 잎들이 흩어져 있다.

연주

할머니, 뭐해?

인숙

상한 것들 잘라내는거야...

연주

그럼 다시 자라 ?

인숙

상한 것들을 잘라내면 다시 자라

연주

신기하다...

인숙

상채기 난 것들을 잘라내 버리면, 다시 자랄 수 있어.

연주

이거 한번도 꽃 피는 거 못봤는데...

인숙

봄 되면 다 피지.

연주

지금 봄인데...?

인숙

연주야, 할머니 흰 머리 좀 뽑아 줄래 ?

연주

흰 머리 ?

인숙

응. 할머니가... 흰머리가 많아서 ...

- cut to

인숙의 목에는 보자기가 둘러있고,

연주는 사무용 가위를 들고 있다.

연주는 장난 삼아 미용실 놀이를 한다.

인숙은 그런 연주의 재롱에 웃는다.

S#7.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연주와 인숙.

버스가 오고. 문이 열린다.

연주

아저씨, 어린이 대공원 가요 ?

연주 기다렸다는 듯이. 아저씨는 연주에게 끄덕인다.

연주, 먼저 버스를 올라타고 인숙에게 손을 내민다.

S#8. 버스 안

창가 쪽에 앉은 인숙, 인숙 창문을 끄끄대며 연다.

바람을 쐬는 인숙, 바람이 상쾌하다.

S#9. 어린이 대공원

솜사탕 노점상인에게 지폐를 건네는 연주,

벚꽃 핀 거리를 같이 걷는 둘.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원.

돛자리를 펴고 누운 여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각양각색이다.

모두 각자 사진을 찍어주고 같이 찍고 있다.

연주, 구형 스마트 폰으로 시간을 확인한다. 아직 다섯 시 전이다.

전화 온 곳이 없나 살핀다. 통화기록에는 엄마라고 찍힌 통화 기록이 가득하다.

엄마가 온 문자들을 살핀다. ‘ 과제 했어 ? ‘ ‘ 학원 버스 잘 탔어 ? ‘ 등등의 문자들.

엄마가 혹시 전화 올까 싶어 걱정하는 연주.

연주

할머니 나... 학원...

인숙

연주야, 우리도 같이 사진 한 장만 찍을까?

연주

응 ? 사진 ?

인숙

응. 같이.

인숙, 지나가는 커플들을 붙잡는다.

인숙

가족 사진이 없어서... 하나도...

연주 얼떨떨하게 인숙에게 스마트폰을 내민다.

인숙, 대학생 커플 같아 보이는 커플에게 구형 핸드폰을 건넨다.

여자는 인숙과 연주를 찍어준다. 인숙은 연주의 손을 잡는다.

어정쩡한 포즈를 하는 둘. 연주의 어색한 얼굴이 숨김없이 사진에 찍힌다.

-cut to

인숙과 연주 앞에 보이는 우리 속 사자. 좋아하는 연주,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인숙.

개나리와 벚꽃이 핀 길거리를 걷는 둘의 뒷 모습.

인숙, 갑자기 숨이 차는지 가슴을 주먹으로 친다. 꽤 세계.

연주

할머니, 괜찮아?

인숙

연주야,

연주

응?

인숙

여름까지만 있음 안되겠지 ...?

인숙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벚꽃이 떨어지는 나무를 보며.

인숙의 얼굴을 보는 연주. 인숙의 얼굴이 쓸쓸해 보인다.

연주, 인숙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이 대답하기에 힘든 말이란 것을 안다.

연주

할머니, 나 여기 처음 와봐.

(좀 밝게)

인숙

엄마 아빠랑은?

연주

아빠는 맨날 바쁘고, 엄마도 자주 늦고. 그래

인숙

연주... 심심 하겠네.

연주

응... 할머니... 예쁘다, 벗꽃

인숙

응...

연주

뷰티풀.

인숙

부디플 ?

연주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뜻이야. 할머니.

연주와 인숙, 둘다 벗 꽃잎이 떨어지는 나무를 올라다 본다.

연주와 인숙, 둘은 이제 막 피어난 개나리 길을 걸어간다.

S#10. 연주 집 / 점심 지나고 저녁이 되기 전

진영이 요란 떨며 집 안으로 들어선다.

진영

어머, 언니. 집 좋네 뭘.

해영도 반갑게 진영을 맞는다. 지홍도 본지 오래된 여동생 진영이 반갑다.

해영

아니에요... 다 낡았는데요 안에는 뭐.

(멋쩍게)

진영

아니, 그래도 서울에 집 있는게 쉬운게 아니지 응 ?

엄마, 그렇게 보고 싶던 오빠 집에 오니까 좋수? 응 ?

진영, 인숙의 손을 맞잡는다. 인숙도 진영이 반갑다.

연주의 집에 차례로 친척들이 들어선다. 진영 부부와 진영네 아들 딸들. 진영네 아들 딸들은 어른들께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다. 상석 부부도 연주 네 집을 들어선다. 어른들은 너가 몇 살이었지 이제? 올해 대학생 이던가. 아이고 많이 컸네. 등등의 의례들 하는 소리들로 거실을 메운다. 연주도 어른들 틈에서 열심히 인사를 한다.

-cut to

좁은 거실 딱 차게 친척들이 모여 저녁 상 앞에 있다.

이미 술 한 두 잔을 한 어른들. 진영네 자식들은 지루한 듯 스마트폰만 만지작 거린다. 어른들은 과거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듯 보인다.

진영

내일 병원 가 봐야 아는 거네. 정확한 건.

지홍

그렇지... 뭐...

진영

언니도 갈 수 있어 ?

해영

하루 학교에다 연차 내서 말 해놨어요... 새 학기라 바빠서 좀 어렵긴 한데...

진영

그래도 선생님은 좋다 언니. 그렇게 빠질 수도 있고, 원할 때.

가게는 빠지면 빠지는 대로 손한테 어?

진영의 말에 해영, 은근 눈치를 본다. 해영, 속으로 어찌라는 건지라는 얼굴이다.

상석

그... 몇일 간병인은 뒤야겠지 ... ?

진영

오빠,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걸... 여기 서울 사는 사람 있는데, 뭐 하러...

아니, 내가 집 가까우면 자주 갈 텐데... 우리는 그게 둘다 잘 안되니까.

(상석을 같이 엮으며 손짓으로 둘을 표시하는)

지홍

나도 평일엔 회사 가고 해영이도 계속 학교 나가야 되는데…?

술을 따르며 각자 생각 속에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연주는 각자 자기 얘기들만 하는 어른들 속에 끼어 있는 인숙을 본다.

인숙도 연주와 눈이 마주친다. 연주는 웬지 모르게 인숙의 눈을 피한다.

진영

우리가 옛날에 진짜… 힘들었잖아. 아버지 사업실패하고. 다 따로 살고.

지홍

뭐, 그때 다 어려웠지. 아버지도 갑자기 아프시고.

(지홍 술을 기울인다. 혼자서)

진영

그래도… 그때 오빠는 서울에 직장이라도 있었지. 나는 대학생이여가지고 그때…

학교도 못 다니고… 나도 그때 오빠한테 진짜 어렵게 전화 한거거든…

지홍

… 미안하다… 나도 그땐… 정말 여유가 없었어…

진영

참… 엄마도 그래. 내가 정말… 참 엄만 딸 들한테 정말 …

그래서 상미 언니 안 온 거 아냐…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는 진영.

진영의 울음에 숙연해지는 분위기. 지홍, 혼자 맥주를 따른다. 해영은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와 몇 장 뜯어 진영에게 건넨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던 진영 네 자식들도 진영이 울음에 멈추고 진영을 살핀다.

인숙

하다... 잘 못해줘서...

진영은 울면서 뭐라 계속 떠들고, 그걸 대답해 주느라 애쓰는 어른들. 인숙의 잘 들리지 않는 흐린 말소리를 옆에 있던 연주만이 듣고 인숙을 올려다 본다. 답답하고 얼굴의 인숙. 가슴이 또 아픈 지 가슴팍을 콕콕 친다. 그런 인숙이 연주는 웬지 모르게 안됐다고 느낀다.

S#11. 대학병원.

해영

너는 안 따라와도 된다니까,

해영과 연주는 급하게 병원 계단을 올라간다.

해영과 연주 병실 복도에 서 있는 지홍과 진영, 친척들이 보인다. 심각해보이는 분위기.

진영

병실에서 오래 계시게 하는 것도 좀 아닌 거 같아 오빠...

간병인도 비용 만만치 않고.

지홍

그럼, 어떡하라고. 불평만 하지 말고 얘길 해봐 그럼.

지홍과 상석, 다들 한숨을 쉬며 답답해 하는데.

해영이 눈치를 보며 지홍 옆으로 서고, 어색한 듯 해영에게 고갯짓으로만 인사를 하는 어른들. 그 속에 연주.

지홍

아니, 나도 회사 가고, 집사람도 계속 학교 나가 봐야 되는데,
계속 우리 집에 있을 순 없잖아... 그렇다고 혼자 계시게 할 수도 없고.

(푸념조로)

연주, 어른들의 이야기 하는 사이, 병문 틈으로 병실 안을 들여다 본다.

병실 맨 끝 인숙이 환자 복을 입은 채 멍하니 병실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다 연주와 눈이 마주친다. 인숙 연주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한다. 연주 어른들이 말다툼 하는 사이, 눈치를 보며 병실 안을 들어간다. 인숙은 다가온 연주의 등을 손으로 툭툭 두드린다. 인숙, 고맙다, 고맙다라고 연주에게 속삭인다. 인숙의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다. 그 링거 바늘이 날카롭고 차갑게 보인다. 인숙은 연주에게 창문에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인숙은 또 연주에게 자꾸 뭐라 말한다.

S#12. 연주 집 / 낮

병원 복을 입은 채, 현관문을 들어서서 인숙. 링거 바늘이 꽂힌 손. 인숙을 부축하며 링거 거치대를 끄는 지홍. 인숙은 전보다 더 야위어 보인다. 해영도 인숙을 부축하며 들고 온 짐들을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야윈 인숙 방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만치 멀뚱히 서 있는 연주를 바라본다. 연주 웬지 낯설어진 인숙의 모습에 무서워 눈을 피한다. 인숙은 부축을 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간다. 해영의 외마디 소리.

해영

어머니, 어휴. 말씀드릴게요.

지홍

잠깐만 엄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연주 조심스럽게 방안을 들여다 본다. 황급히 걸레를 가지고 들어와 바닥에 오물을 닦는 해영. 지홍 난감한 듯 거치대를 치우고 인숙의 병원 바지를 내리려고 한다. 인숙은 어정쩡하게 서 있고, 뭐라 말하려 하지만 말하지 못해 이상한 의성어를 내뿜는다. 보는 연주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다.

S#12. 연주 집 / 안방 / 밤

인숙

연주야, 연주야.

인숙이 다정한 목소리로 자고 있던 연주를 깨운다.

연주

응..? 왜 ...

연주는, 눈을 비비고 주위를 살핀다. 옆에는 해영이, 침대 위에는 지홍이 자고 있다. 인숙은 좀 전과는 달리 밝아 보인다.

인숙

연주야, 꽃이 폈다!

연주

응?

인숙

꽃이 폈어. 이리 와봐.

연주, 인숙의 손짓을 따라 거실로 나간다. 인숙이 아끼던 말라 비틀어 버려진 난초에 정말 하얀 꽃이 피었다.

연주

정말이네...

인숙

이쁘다 ? 그지 ?

연주

응... 할머니...

연주과 인숙이 마주보며 웃는다. 인숙은 연주의 불을 조심스레 쓰다듬는다. 따듯한 얼굴로 연주의 불을 쓰다듬어 준다.

S#13. 연주 집 앞 / 낮

해영

김연주 ! 너, 할머니 가시는데 정말 안 나올거야?

재가 왜 저래.

지홍

넵 뒤. 늦잠 자게. 진영이 거의 다 왔대. 내려가 봐야 돼.

현관문 앞에서 연주가 있는 방을 향해 소리치는 해영,

지홍은 온 전화를 받는다.

지홍

어, 우리 내려가. 어 103동. 응 알겠어.

인숙은 연주가 있는 닫힌 방문을 현관문 턱에서 자꾸 두리번거린다.

인숙의 거치대를 현관 밖으로 끄는 지홍. 지홍이 이끄는 대로 나가는 인숙.

해영

어머님, 딸네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요.

저희가 추석 때는 꼭 내려 갈게요. 연주 데리고요.

해영은 인숙의 손을 꼭 붙잡아 준다. 인숙, 말없이 잡은 해영의 손을 가볍게 흔들고, 해영의 손을 놓는다. 해영 뭔가 씩씩한 얼굴. 인숙과 지홍이 나가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연주가 방문을 열고 나온다.

해영

너 안 잤어 ?

병진 해영의 얼굴을 뒤로 하고
거실의 화분들을 확인하는 연주,

연주

엄마, 삼 있어 ?

해영

삼 ?

S#14. 아파트 뒷 마당

해영과 연주 둘, 삼으로 구덩이를 파놓고, 구덩이 안에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 난초를 흙으로 덮는다.

연주

엄마.

해영

응?

연주

애 물어주고, 여기 위에 물을 계속 주면 다시 꽃이 필까 ?

해영

글쎄. 이 난초는 이미 생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다시 피기 어렵지.

연주

그래도 찢으면 좋겠다.

해영

그래, 곧 여름이니까. 찢 수 있을 거야...

연주

흠 냄새 좋다 엄마.

연주는 고민 있는 얼굴이다.

연주는 작은 두 손으로 흠을 푹푹 누른다.